

-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 회 의 록

회 의 명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일 시	2024. 2. 14.(수) 13:30
장 소	제1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
참석현황	40여명
주재자	김미영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 장관훈 (중구 체육회 회장) - 김예순(율목동 통장)
주요내용	- 의정비에 대한 주재자의 사전설명 -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 발표 - 발표자 상호간 질의·응답 및 방청객 의견제시 등

(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은 국민 의례,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 및 잠정 결정(안) 설명, 의정활동비 관련 의견 발표 및 토론, 방청인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재해 주실 의정비심의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중구 체육회 회장님이신 장관훈님 참석하셨습니다.

- 율목통 통장님이신 김예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청회 주재자이신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공청회 전반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안녕하세요

오늘 공청회를 주재하게 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조금 버벅거리어도 이해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기 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설명 이후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발표자 상호 간 질의응답을 하게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방청객들의 의견제시 및 토론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재자인 제가 의정비 결정 절차와 잠정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보수인 의정비는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뀐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 인상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므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만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수집,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의 성격으로 그 액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항목으로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항목으로 월 3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024년 1월 5일에 개최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잠정 결정안으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결정하여 총 월 150만원, 연간 총액은 1800만원으로 잠정 금액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금액 결정에 반영하게 되어있어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 제한이 가능하며 공청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의 또는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고 의정활동비 책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대안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의견 발표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장관훈님께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 발표와 두 번째로는 김예순님께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1인당 발표시간은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진행 순서대로 먼저 장관훈님의 의정활동비 인상 찬성과 관련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 장관훈)

네 안녕하세요? 장관훈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의정활동비를 좀 인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의정활동비가 개정된 배경을 먼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상승 대비해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 지방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가 좀 인상되어서 포괄적으로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결 상태라고 했지만 물가 상승이 20년간 56.2%가

올랐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정활동비가 20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좀 고려해서 정부에서도 좀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재정능력을 좀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약 3113억이었고 23년도에는 5,051억 5년간 보면 62% 정도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2022년 기준으로 37.7%이고 인천시에서는 시군구 중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비교해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11위에 우리 중구가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재정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지금 40만원 정도 인상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정 취지를 보면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 대비 반영이 안 되는 금액을 준다고 하면은 요즘 세상에 누가 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지방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 연봉을 보면은 23년 기준으로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분은 한 분당 한 8억 정도가 일년에 이제 보좌관하고 의정활동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리지만 지방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비해서 본다고 하면은 4천만원보다는 지금 이하로 받고 있지만은 좀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지방의회의 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그리고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사안을 더 고민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의견을 들어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라도 구의원분들의 의정활동비가 좀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정활동비가 바로 그 용도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 때에도 의정활동비, 연구비, 보조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현재 이제 1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한다 하면은 150만원에서 40만원이 인상되는 건데 누가 의정활동비를 자문이나 고문 아니면 연구비 그런 걸 친다 하더라도 15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저희가 40만원을 상향한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원님들은 각 동에서 이렇게 봉사직으로 선출돼가지고 무보수로도 하고 있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선출직에 급여를 좀 이어가면서 공사직도 겸직하면서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인상시켜줘가지고 의원 활동하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할 거면 요청하고 질타할거 좀 질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관심을 갖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일정을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보고 또 젊은 인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인해가지고 인상을 해줄 때 보다 더 원도심이나 중구 전체에 발전적인 역할을 더 하시고 또 긴장하시면서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하기보다는 40만원 인상 폭에서 인상을 해주셔서 보다 더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네 장관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김예순)

안녕하세요. 저는 율목동에 사는 김예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르게 겸직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구에서 겸직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과반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겸직을 통해서 보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고 세수 결손이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우리 중구 살림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의원님들이 구정 상황을 고려하시어 예산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인 건 알겠습니다. 다만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분들은 더 잘 활용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말씀하시면 올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정활동비가 연구 활동이나 보조활동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용 분야도 금액이 56%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활동이라고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유료비 같은 것일 텐데 이런 부분도 금액적인 측면에서 56%가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의원님들 급여 보전의 문제로 또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로 인상해줘야 한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근거로 인상해주는 월정수당을 인상해주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의정활동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발표자분들끼리 서로 질문 답변하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장관훈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장관훈)

요즘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좀 의정활동비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년 동안 물가 상승 대비해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갈비탕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잘 먹는 짜장면

그런 것도 다 1만원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 밑바탕은 저희가 내는 물론 세금이다 할지언정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게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려주는 거에 반대하신다는데 우리 지역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올려주시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 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반대 측인 김예순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발표자 김예순)

아예 올려주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의정비가 적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겸직이 가능하시고 현재 재정이 힘든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영향을 받을게 분명한데 굳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해줘야 하는지 싶습니다. 나라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그러면 찬성측인 장관훈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실건지? 지금 김예순님께서 반대 측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발표자 장관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물가 상승 대비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역을 순시하고 민원을 듣기 위해서는 좀 의정활동비가 조금이라도 좀 상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겸직하고 한다 하지만은 사람이 한 직업에 몰입하면 그 직업은 조금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은 겸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본업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의원 활동에 충실하게 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의정활동비를 인상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재자 김미영)

김예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표자 김예순)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겸직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의원님들 겸직을 이미 하고 있어 과반이 넘는 의원님들은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장관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 자립 기반도나 그리고 역량 재정 그런 거를 봐서 좀 지방자치로 해가지고서 이제 현실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지방에서 하라는 그런 하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11위에 랭킹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묶어놓고서 활동의 영역을 좀 줄여줄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라도 우리 구가 지금 우리 인천으로 따지면 10개 군구인데 거기에서도 거의 7번째 수준이라 하면은 의정 활동비를 봤을 때에는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탁월하게 많이 받고 있고요. 미추홀구, 서구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서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큰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비에 대해서는 좀 상향 조절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재자 김미영)

김예순님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발표자 김예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그러면 두 분은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이상으로 상호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청하신 분들 중에서 발표 내용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고 어디 사시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항동 주민 조○○)

네 개항동에 사는 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발표하신 장관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결과는 찬성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20년 전 시급과 지금 시급을 봐서라도 엄청난 시급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가 대비 지금 솔직히 20년 전 물가나 지금 물가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의정비를 올려줌으로써 이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저희가 부리면 됩니다. 1시간 일할 걸 2시간 더 뛰게 하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재자 김미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신포동 주민 이○○)

저도 찬성에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상 저희가 보고 느끼시는 주민들은 다 모를 겁니다. 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 새벽부터 보면요. 어쩔 때 보면 안쓰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도 주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저도 그런 면에는 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대. 하지만은 구 의원들이 겸직한다 그래서 제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다 모르실

겁니다. 그거 제재를 받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 구의원은 누구한테 지금 도움 청했겠지 했겠지 하고 전부 다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특이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물가 상승보다도 그 의원들을 어떻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기 어디 사시는 분이신지

(운서동 주민 김○○)

저는 운서동에 사는 김○○인데요. 저도 찬성 쪽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 쪽에서 문자, 유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자, 유류비로 따진다면 진짜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전에 비해서 유류비도 아시잖아요. 지금 150이 많아 보이시지만 유류비만 해도 기름값만 해도 여기 반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활동비로 따질 때 이분들은 돌아다니는게 활동비인데 그렇잖아요. 발이 곧 바뀌고 자동차일 텐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더 밀어주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으쌰 으쌰 해야지 거기에 발목을 잡고 꺾는다는 건 큰 돈 100만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제가 반대하고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150만원이면 저는 사실은 그것도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적정하게 나름 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게 많다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힘이 빠지지 않을까 저희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도는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저는 찬성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재자 김미영)

감사드립니다. 또 누구 의견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발표자 장관훈)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발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좀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찬성했습니다.

(주재자 김미영)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발표자 김예순)

아니요. 저도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말고 대선이 끝난 뒤에 내년쯤이나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찬성하시면 올려드려야죠.

(주재자 김미영)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공청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이 갖고 계신 의견서를 작성해서서 의견서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향후 개최할 제2차 의정비심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